

## 동물애호가들의 신문 광고문

김영환  
(전호부화장 전무)

**Put Animals into Politics!**



**All governments have allowed cruelty to animals.  
Now is the time to stop it!**

<p>A large number of animal welfare and protection societies have come together in a single movement for the purpose of putting animals into politics. The only way to do this is to have an area of immediate concern and we know that more than thousands of people are looking to Parliament to introduc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in this country. <b>OUR SIX AREAS OF CONCERN ARE:</b> (List in order of priority)</p>	<p><b>1 FACTORY FARMING</b></p> <p>Where animals are kept in cages and machines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meat and eggs.</p>	<p><b>2 EXPERIMENTS ON LIVING ANIMALS</b></p> <p>Where living animals are used for scientific and medical experiments and for testing cosmetics and other non-medical products which frequently cause pain and suffering.</p>	<p><b>3 TREATMENT OF HORSES</b></p> <p>Where horses are treated cruelly by exposure and neglect. Where horses are transported thousands of miles for slaughter to provide meat for the Continental table.</p>
<p><b>4 EXPORT OF LIVE FARM ANIMALS</b></p> <p>Where farm animals suffer hardship and cruelty during transport both for overseas slaughter and further fattening.</p>	<p><b>5 DOGS IN THE COMMUNITY</b></p> <p>Where dogs are left to roam uncontrolled and where the majority remain uncontrolled without a properly regulated system of registration or licensing.</p>	<p><b>6 BLOOD SPORTS</b></p> <p>Where Public Game Pools indicate that the majority of people are in favour of banning blood sports. That is the killing with honour of others. Dogs, birds and horses and so on have no choice.</p>	<p>The protection of animals against serious and inhumane cruelty is of serious public concern. There can be no doubt of the importance of this subject. <b>NOW is the time for POSITIVE ACTION.</b> More and more voters are waking to know where the political parties stand on this moral issue. <b>Ask YOUR M.P. or Parliamentary Candidates.</b></p>

**General Election Co-ordinating Committee for Animal Protection**

여러나라 정부들이 동물에 대한 잔학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이제 잔학행위를 중지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총선거 출마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 동물애호가들의 도전

영국을 비롯한 북구라파 여러나라에서는 동물애호가들의 활동이 제법 거세어 지고있다.

덴마크에서는 이미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중지에 대한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이고, 영국에서도 요즘 동물애호가 단체들이 한데 뭉쳐, 양계산업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들은 일평생동안 오도가도 못하는 좁은 케이지 속에 산란계를 가두어두는 잔학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외치는가 하면, 국민학교에 배포되는 유인물을 통하여 양계업계의 계란 영양가에 대한 허울좋은 선전 이면에는 잔학행위가 숨겨져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목표는 물론 닭만은 아니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약물시험, 부로일러나 소 등을 너무 비육시키는 행위, 병

들은 가축을 방치하는 행위, 투계, 투견등의 유혈 스포츠(Blood Sports), 개와 말에 대한 복지후생문제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톱 타겟은 역시 닭 돼지의 케이지, 배터리 사육문제 인것같다.

영국의 13개 동물 애호단체들은 다가오는 총선거를 맞아 “동물보호를 위한 총선거 대위원회”를 결정하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뽑힌 호튼경(Lord Houghton)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케이지, 배터리 시스템을 반대하며, 평사일지라도 산란계는 1평당 3.3마리 이하, 육용계는 1평당 6.6수 이하의 밀도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총 선거에서는 정치집회, 피켓팅, 데모를 통하여 출마자들에게 “동물도 잘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홍보하거나, 압력을 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이 위원회의 활동책자에서는 매우 자신 있는 호언을 하고있다. “이제 동물복지 문제는 대중의 더욱 큰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으며, 투표함을 통한 우리의 의사관철의 시기는 무르익었다”고 한다 여하간 이들의 매우 뜻깊은(?) 캠페인에 출마자들이 성가시게 되었다. 이들에 동조하지 않으면, 꼭 동물에 대한 잔학행위를 찬양하는 야만인 썸으로 몰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가축사육방식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은 15년 전이다. 동물애호가들이 시끄러운 여론을 조성하자. 브람벨 청문회(Brambell Committee of enquiry)가 결성되었고 이들이 제시한 보고서가,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복지 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mmittee)를 구성케하였고, 동위원회는 가축을 먹이고 다루는데는 이리이러하게 해야 한다는 「가축관리요강」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영국양계업계의 반응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골든레이(Golden lay) 제란회사에서는 닭은 결코 혹사되고 있지 않다는 유인물을 만들어 각학교에 돌려 맞서고 있다. 닭은 단열시설이 잘된 편안한 계사에서 살고 있으며, 수많은

영양학자들이 연구하여 만드는 고가의 영양사료를 먹으며 살고 있으며, 많은 질병전문가들이 닭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어서 또한 계사는 닭이 필요로하는 적당한 온도, 습도, 환기를 충족시켜주도록 아주 잘 시설되어 닭은 매우 안락한 상태에서 사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스코틀랜드 농과대학의 게리 에만스(Gerry Emmans) 교수는 산란계가 케이지 수용상태에서 가장 알을 잘 낳고, 건강도 제일 좋은것을 보면, 산란계의 수용방법이 산란계의 복지를 나쁘게하는것은 아니지 않겠는가고 반문한다.

동물복지 애호가들은 평사사육이나 뒷마당양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케이지보다도 생활환경이 더욱 나빠 질 수 있는것이다. 추운겨울에 한평에 3-4 마리 넣어 보온을 시킨다는것도 안되는 일이고, 더많은 땅, 더많은 노동력, 더많은 폐사율, 더 많은 병아리, 더 많은 관리인 더욱 많은 기술서비스맨, 새로운 사육체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비가 필요해 질것이라고 주장하고 동물애호가들의 관점에서 평사사육이 닭한테는 이상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를 관리하는 관리자나 양계장 주인에게는 모든면에서 이상적이 못될것이고, 무엇보다도 계란생산비 증가로 계란값이 올라가면 계란소비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셈이 될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동물복지가들의 복지는 누가 지킬 것이냐고 반론을 제기하고있다.

실제로 양계를 해보지 않고, 양계를 모르는 동물애호가들의 감상적인 행동이 영국의 양계를 현대적인 케이지 시설이 시작된 25년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지 같은 양계가로서 걱정이된다.

다른 축산물들이 과거 10년간에 크게 값이 뛰는데 비하여 닭고기 계란은 거의 오르지 않은채로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축산 정책에서 유독 양계가 서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영국양계가 들에 있어 이번 동물복지 문제는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시련인것 같다.